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13시간의 사투끝에 K2정상을 밟은 박영석 씨가 정상에서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거대한 빙벽을 오르기 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



◇죽음을 부르는 산, K2 암벽을 오르는 대원들.

"정상 잠시 머물뿐…다시 '안전 하산' 도전"

히말라야 고봉 14좌 완등 박영석씨

히말라야의 사나이 박영석(39 · 동국대 산악회 OB) 씨가 7월 22일 K2(8,611m) 등정에 성공했다. 지난 93년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이래 8년 만에 히말라야 8,000m급 14개봉을 모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더욱이 국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짧은 기간에 이뤄낸 결실이어서 더 값지다. 박 씨는 지난 97년부터 만 1년 동안 8000m급 고봉 6개를 등정, 이 부문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산악인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그는 왜 산에 오를까. 히말라야 8,000m 고봉 14좌 완등하고 돌아온 그는 이 질문에 멋쩍게 웃는다.

"산에 갈 때 어려운 생각 안합니다. 특히 히말라야 등반할 때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 이외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는 산을 오르는 것을 인생에 비유한다. 회사원이 아침 식사 하고 출근해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역정은 우리와 다르다. 어쩌면 수행자의 그 어떤 고행보다 더 험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 오르기를 구도 행위에 비유한다.

"고행에 비교한다면 이보다 더 큰 고행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는 고행이니까요." 그는 산에 오를 때는 단 한 순간도 자신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과 수없이 싸웁니다. 더 이상 못가겠다. 내려가자.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더 해야지. 조금만 더해보자. 루트가 막히면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며 내려가자는 유혹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구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에 도달하기 전까지 '포기하자' '더 오르자'하며 수없이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단 한 순간이라도 물러서면 어떤 봉우리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8.000m가 넘어가면 지상의 3/1정도 밖에 안되는 공기와 낮은 기압으로 3~4 걸음 걷고 10분간 숨을 몰아 쉬어야 하는 극한 상황의 연속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때문에 박 씨는 8,000급 고산 등정은 준비된 인간과 대자연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날씨가 받쳐 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먼 산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수없는 극한상황 이겨야
雪山은 사람의 발길 허용
"포기하자"-"더 오르자"
한걸음 내디딜때마다
자기 자신과 싸움

"8.000m급 이상에서는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저 신이 허락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고산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겸손하게 걷고 오르는 것에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특히 K2는 연봉으로 이어져 있는 다른 히말라야의 고산과는 달리 주변의 다른 산들과 떨어져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독립봉이다. 때문에 빙하를 통과하는 급한 기류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일기상태의 변화가 몹시 심하다. 등반사상 가장 많은 산악인의 희생을 요구하였던 것도 거칠고 급하게 솟아 있는 산세와 더불어 날씨가 중요한 몫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K2는 '죽음을 부르는 산' '마(魔)의 산'이라고 불린다. 결국 8,000m가 넘으면 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계란 얘기다. 그런 상황에 부딪치면 박 씨는 늘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지난 99년 세계 세 번째 고봉인 칸첸중가(8,586m) 해발 7,800m 고지에 설치한 4캠프를 출발 정상 부근의 강풍과 가스지대를 뚫고 13시간여의 사투를 벌일 때 그는 밤새워 관세음보살을 찾았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는 불상을 봉안하기도 했다.

박 씨는 "거대한 산에 거미줄 같은 줄 하나 내려놓고 그 줄에서 30cm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인간의 미약함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와 같은 대자연이다"고 말한다.

사실 박 씨의 이번 K2 등반도 15일 동안 베이스캠프에 있을 정도로 악천후의 연속이었다. " K2의 날씨는 고약합니다.

눈과 강풍과의 사투
저절로 '관세음보살' 염송
에베레스트에 불상 봉안
"겸손하게 오르고 내릴뿐"
'7대륙 3극점' 새로운 목표

쨍쨍하던 날씨가 단 몇 분만에 강한 눈보라가 치고 가스지대가 형성됩니다. 눈사태도 만만치 않지요."

박 씨는 날씨가 가장 좋았던 7월22일 새벽 1시 40분 정상을 향했다. 그리고 13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14봉 등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 씨는 8년간을 이어온 긴 시간의 목적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국 후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밟은 소감을 묻는데 사실 희열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정상을 밟는 순간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가 더 걱정이 돼요. 특히 K2의 경우 하산 중에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90%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을 누릴 여유같은 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박 씨가 히말라야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나슬루 등정에 성공한 동국대 산악팀의 귀국 장면을 보면서부터다. '내가 있을 곳이 저기다'라고 결정한 그는 동국대 체육학과에 들어와 곧바로 산악부 문을 두드렸다. 90년 랑탕리(7206m)의 세계 초등을 이뤄낸 것이 히말라야 첫 도전이다. 그 후 지금까지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성공만 있은 것은 아니다. 두 번에 한번은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하지만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은 세계 '최고의 산악인'이 돼야겠다는 뚜렷한 목표다. 그런 고집이 있기에 세계 산악계에서도 고산 등반의 대표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산은 곧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박 씨는 "요즘 사람들은 목표가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씨에게는 끝이 없다. 끝은 곧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번 히말라야 8,000m 고봉 14좌 완등은 7대륙 3극점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2003년 봄까지 7대륙 최고봉과 3극점을 모두 오르는 그랜드슬램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3개 극점중의 하나인 에베레스트(8,848m)는 이미 올랐고 남극과 북극 횡단을 제외하면 그리 어려운 코스는 없어 무난히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14좌를 완등하고 3대륙 3극점이란 새로운 도전장을 낸 박 씨는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와 다시 산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고 말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히말라야 고봉 14좌 등정 일지

순서	산	높이	등반
1	에베레스트	8,848m	93년 5월16일
2	안나푸르나	8,091m	96년 5월4일
3	디울라기리	8,167m	97년 4월27일
4	가셔브름	8,068m	97년 7월9일
5	가셔브름2	8,035m	97년 7월17일
6	초오유	8,201m	97년 9월27일
7	낭가파르바트	8,125m	98년 7월21일
8	마나슬루	8,068m	98년 12월6일
9	칸첸중가	8,586m	99년 5월12일
10	마칼루	8,463m	00년 5월15일
11	브로드피크	8,047m	00년 7월30일
12	시샤팡마	8,027m	00년 10월2일
13	로체	8,516m	01년 4월 29일
14	K2	8,611m	01년 7월22일





◇박영석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함께한 K2 원정대 대원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산사자 연잎 수프



고혈압 · 고지혈증에 도움

긴 여름 더위에 많은 땀을 흘렸을 터라 이맘때면 기가 몹시 상해 있을 때이다. 이렇게 생체리듬이 바뀔 때면 특히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 이 때는 보약보다는 목욕이 더욱 효과적이다. 탈진된 기를 회복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는 목욕이 제일이기 때문이다. 옛 조상들은 어떻게 여름나기를 했을까.

삼국시대에는 이미 공중목욕탕이 존재했다. 그것도 신성한 사찰 경내에 목욕탕을 만들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목욕문화는 더욱 발달했다.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 사람 서긍이 쓴 <고려도경>(1123년 고려 인종 때의 풍습을 묘사한 책)에서 그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조는 억불정책으로 사찰의 목욕문화는 사라졌다가 1924년 일본이 평양에 지금과 같은 모습의 근대적 공중목욕탕을 최초로 만든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는 왜 신성한 사찰 안에 목욕탕을 만든 것일까. 그것은 불공을 올리기 전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재계를 통해서 심신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불교적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다. 또 당시는 잦은 전쟁으로 아녀자들에게 대한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 때도 역시 신성한 부처님 앞에서 목욕재계함으로써 더러움과 수치심, 굴욕감에서 벗어내도록 하는 취지였다. 특히 신라인들은 목욕물에 연잎과 마른 쑥을 삶은 물로 목욕하기를 즐겼다. 귀족들이 사용한 조두(燥豆: 옛날 목욕용 세재)에는 팥과 녹두, 쌀겨와 행인 등으로 만든 고급 비누가 이용되었다. 또 목욕이 끝난 뒤에는 귀족이나 천민 할 것 없이 누구나 연잎과 산사자로 만든 차와 수프를 마셨다. 이처럼 약물 목욕과 산사자 연잎 수프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조상들의 지혜이며 우리의 소중한 사찰문화이기도 하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모색)의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산사자 60g, 신선한 연잎 3~4장, 볶은 소금, 간장, 물

요리법 ① 산사자와 연잎을 깨끗이 씻고, 연잎은 한 변의 길이가 2~3㎝인 사각형 모양으로 썬다. ② 위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 5컵을 부어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소금, 간장을 넣고 불을 약하게 해서 약 15분간 다시 끓인 후 그릇에 담아낸다.

효능 ① 연잎은 열을 식히는 기능이 있어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데 좋다. ②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더위를 몹시 타는 사람에게 좋다.